

중국TV드라마에 나타나는 ‘일상의 권력’에 대한 푸코적 해석*

이강인**

【목 차】

1. 들어가며
2. 드라마 선정과 선행연구와의 비교
3. 일상의 권력에 대한 푸코적 해석
 - 1) ‘감시’를 통한 일상의 권력 작동
 - 2) ‘규율’을 통한 일상의 권력 작동
 - 3) ‘생체(몸)’을 통한 일상의 권력 작동
4. 나가며

【초록】

본 논문은 일상의 삶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권력들이 어떻게 대중들에게 행하여지고 있으며, 어떻게 일상의 삶을 지배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 대중들에게 이슈화되었거나 인기를 끌었던 TV드라마를 통하여 그들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권력들을 분석하고 이들의 문제점들이 무엇이며 어떻게 중국을 바라볼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푸코가 주장한 권력 담론을 방법적 틀로 삼아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의 형태를 분석하고, 권력이 어떻게 대중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 하였으며, 특히 감시, 규율, 생체(몸)의 권력으로 나누어 드라마 속에 어떻게 이들이 작동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키워드】 일상권력, 중국, TV드라마, 푸코, 담론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B5A07042613)

**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 초빙교수 (whoru888@naver.com)

1. 들어가며

중국인 시진핑(習近平)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전에 보여진 부정부패척결의 정도보다 훨씬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다. 정치적 입장에서 보면 기존 관료들의 부정부패와 권력지향적인 돈과 섹스와의 관계들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진핑 정부는 새로운 국가체제 확립을 위해 반부패정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반부패정책은 일반 대중들에게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어느 정도 정화작용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반부패정책은 새로운 반대세력을 형성할 수 있어 지속적인 긴장감 속에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중국의 지속적인 반부패청산 작업으로 반대세력의 색출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4차 산업의 일환인 안면인식 기능을 활용한 범죄자 색출에 전면적으로 나서고 있다. CCTV의 설치와 AI를 통한 인식기능의 검색은 실제로 중국에서는 매우 일반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공항, 지하철역, 기차역, 심지어 학교 기숙사나 도서관 등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¹⁾ 그리고 이러한 감시의 작동 외에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는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웃 간의 감시 작용을 하는 일도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의 일상에서 감시와 규율은 상당히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형세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감시 작동은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통제 작동하고 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정치적 권력, 경제적 권력들을 차치하고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접해지는 권력이 권력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할 그러한 일상의 권력이 작동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일상의 권력은 국가가 일반대중들에게 은밀히 작동시키는 권력일 수도 있고 직장이나 학교, 또는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 권력이 작동할 수 있다. 이러한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권력들은 일반 대중들에게도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으며 이 권력에 대해 피해를 보고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또한 정치적으로도 정부의 개입으로 일반 개인의 권익마저 지배당하는 현상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정도의 차이일 뿐 중국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역시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하다.

권력에 대해 일찍이 푸코는 그의 저서 『성의 역사 1, 2, 3』, 『감시와 처벌』, 『광기의 역사』 등에서 많이 언급하였는데, 그중에서 『감시와 처벌』은 이러한 권력이 인간과 신체를 어떻게 감시하고 처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근대적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권력의 역사, 권력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계보학적으로 담아내었다. 그리고 그는 지배의 속성을 지닌 권력이 어떻게 권력이 유지되어지는가를 ‘감시’와 ‘규율’ 그리고 ‘생체’를 통하여 권력의 속성을 해석해내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푸코가 ‘권력이 개개인들의 행위를 지배함으로써 그들을 종속시키는 방식’에 대해 집중하였다는 것이다. 그는 권력의 속성보다 권력이 생기는 방식에 주목하였는데, 그는 권력이 수직적인 속성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중심이 없는 밑으로부터 다양한 지점에서 생긴다고 보았다. 즉 푸코는 권력이 주체를 드러내지 않고 개개인을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언제나 감시와 규율로 통제

1)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5/> (검색일: 2018.04.28.)

가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이는 감시와 규율을 통한 훈육으로 통한 통제가 가능하며 인간은 자연스럽게 이러한 권력에 길들여지며 순응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권력의 작동들은 우리가 인식하든 하지 못하든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TV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을 허구적으로 보여 주는 좋은 장치이다. 드라마는 우리의 일상을 담아내기에 매우 적절한 방식이며 우리 삶의 투영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의 의식 상태는 그 나라의 대중문화를 보면 알 수 있는데 TV드라마는 대중의 삶과 의식을 반영하는 하나의 거울 역할을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일반 대중들이 즐기는 드라마는 자신들과 직접적 관계가 있는 스토리에 열중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 있기에 드라마 장르는 대중 의식의 흐름을 관찰하기에 좋은 연구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시대적으로 대중적 인기를 끌고 있는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와 그 국가를 이해할 수 있는 지표이기에 대중매체를 통하여 중국을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 역시 하나의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²⁾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에서 방영되어 이슈화가 되었던가 아니면 대중적 인기를 얻었던 TV드라마들을 중심으로 드라마 속에 재연되는 중국인의 모습을 보면서 일상의 권력과 어떻게 연결되고 작용하는 지를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연구의 방법적 틀은 프랑스 철학자 푸코의 권력 담론을 이용하여 드라마 속에 담겨져 있는 여러 장치들을 찾아내어 의미적으로 해석해 내어 현대중국인의 의식과 삶들을 이해하고자 한다.

2. 드라마 선정과 선행연구와의 비교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세계적으로도 그 입지를 확고히 다져나갔다. 그리고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박람회를 거치면서 더욱 경제적으로 입지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이러한 급속한 경제적 발전을 이루고서도 중국인의 의식은 경제속도를 따라 가지 못하여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일상에서 행하여지는 여러 가지 권력의 작동은 중국인의 삶을 피폐화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대중문화의 대표적인 TV드라마를 보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드라마는 그 나라 문화를 대변해주는 좋은 장치 역할을 하기에 드라마를 통하여 그 나라의 의식을 이해할 수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적 향상에 따라 중국의 드라마의 제작 수준이나 연기 등 많은 부분이 많이 발전되었다. 그리고 일반 중국인들의 관심사도 다양화되면서 드라마 소재 역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중국 드라마에서 이러한 일반 대중들의 욕구에 맞게 다양한 드라마를 제작 방영하고 있다. 일반적인 정치 드라마와 가족 드라마, 아이돌 드라마 등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제작하고 이들 속에 직접적으로 현실을 반영하는 드라마들도 제작되고 있다.

대체적으로 중국의 드라마에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과 이를 마련하려는 과정 속에 갈등이

2) 조복수, 「중국 드라마 <달팽이 집>에 나타난 여성」, 『드라마 연구』, 제38집, 2012, pp.237-238.

일어난다든지, 직장에서 상하관계로 인하여 심각한 갈등과 부작용이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빈 부격차에 따른 여러 좋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든지를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다. 중국이 2008년부터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이루면서 경제 문제, 사회부패 문제, 불륜문제, 교육과 양육문제 등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중국인들이 실제적으로 당면한 문제들을 TV드라마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그중에서 본 논문이 선택한 드라마는 총 4개 작품이다. <달팽이 집(蜗居)>(2009), <베이징 러브 스토리(北京爱情故事)>(2012), <마이 선샤인(何以笙箫默)>(2015), <우리들의 사랑(我們的愛)>(2017)을 그 대상을 삼았다. 이 작품들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이 드라마가 중국인들의 2008년부터 최근 2017년에 이르는 전환기적 작품들이고, 중국인들의 일상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다양한 삶을 상징해 놓은 작품들이다. 이 작품들을 보면 중국인들의 일상을 이해하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자연스럽게 작동하고 있는 일상의 권력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사실 본 논문의 출발점은 바로 권력이라는 무거운 담론이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는 일상의 삶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의문점에서 출발하였다. 분명 우리의 일상의 삶속에서도 권력은 그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 한국사회에서도 일상의 권력이 빈번히 일어나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지만, 중국 역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은 다름 아니다. 이에 중국의 대중매체인 TV드라마를 통하여 이러한 일상의 권력들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대중들은 이를 받아들이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데 있다.

또한 본 논문은 그동안 주로 영화에만 치우쳐져 있던 중국 대중문화에 대한 분석을 TV드라마라는 매체를 통하여 중국사회 내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많은 행위들 중에서 권력이라는 행위에 의해 지배되는 현상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아 살펴보는 것이 중국을 이해하는데 큰 이해의 폭을 넓히는 데 있다고 보았다. ‘권력’은 인간의 의식세계를 지배하면서 삶의 행위에서도 지배하고자 하는 힘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 대중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TV드라마를 통하여 중국 사회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상의 권력들을 알아보고, 이를 푸코가 지적했던 권력 담론으로 해석하여 중국사회가 안고 있는 내부적 문제점들을 풀어어나가고자 한다.

이 주제와 관련된 선행연구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김정옥, 이승은(2010)의 「상하이 도시 문화연구, TV드라마 <오막살이>의 서사 전략에 나타난 문화, 여성, 권력에 대한변주」가 있다. 이 논문은 여성의 관점에서 도시사회에서 여성이 살아가야하는 힘든 상황을 기준으로 논문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조복수(2012)의 논문 「중국 드라마 <달팽이 집>에 나타난 여성」의 논문 역시 힘든 도시 여성의 관점에서 서술되었는데, 둘의 논문은 공통적으로 일정한 페미니스트 시각으로 서술되는 한계점들이 있다. 박완호(2012) 「한·중 신시대의 변해가는 혼인문화 고찰 — 중국 TV드라마 <裸婚时代>을 중심으로」는 한국과 중국의 신세대들이 맞는 새로운 문화에 대한 적응기 정도로 서술하였다. 그리고 중국의 몇몇 논문들도 역시 여성의 관점에서 서술하는 경향을 보였다. 예를 들면 張權生(2011)의 논문 제목은 「<蜗居>의女性主義批評」이다.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단순히 드라마의 주제를 나열식으로 정리하거나 플롯

분석위주 또는 여성의 시각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한계점은 현시점에서 중국의 문제점들을 바라보고자 하는 시각과 미래의 중국을 관통할 수 있는 의식의 제고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기존의 논문들의 시각과 분석의 틀을 벗어나 중국 사회 내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상의 삶속에 나타나는 권력의 행태들을 TV드라마라는 장르를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3. 일상의 권력에 대한 푸코적 해석

주지하듯이 권력의 담론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감시와 처벌』, 『성의 역사 1, 2, 3』에서 계보학적으로 권력에 대한 자신의 철학을 담아내었다. 푸코는 그의 저서 『감시와 처벌』에서 권력이 인간과 신체를 어떻게 처벌하고 감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근대적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태어났으며 권력의 역사, 권력에 대한 철학적 이론을 서술하였다. 지배의 속성을 지닌 권력이 어떻게 권력이 유지되어지는가를 감시와 규율과 신체를 통하여 잘 서술하고 있다. 특히 그는 영국 철학자 벤딕의 판옵티콘(자동으로 작동하는 감옥)의 감시체계 원리를 적용하면서 사회 전반으로 파고들어 규범사회의 기본 원리인 ‘판옵티시즘(panopticism)’으로 바뀌었음을 지적하였다. 푸코는 권력이 우리의 몸의 구석구석을 미시적으로 지배한다는 점에서 ‘생체 권력(bio-power)’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는데 매우 현시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정의이다.

최근 많은 국가들은 CCTV 감시, 지문날인제도, 전자주민카드 및 전자 인증서 등을 통해 개인을 미시적으로 감시하는 시대가 되었다.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모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중국은 이러한 시스템이 매우 빨리 적용하고 있으며 중국인들도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사회적 개인의 몸(생체)과 권력과의 관계에서 권력의 작용점이 바로 몸(생체)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반 대중들은 권력에 수동적이 되면서 그것이 정신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신체에 행하여지는 권력은 대중을 지배하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대중은 일상의 삶속에서 권력의 지배를 받으면서도 이를 벗어나려는 의지가 약화되어 있으며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수평적 관계에서 권력의 지배를 받아 수직적 관계가 형성됨에도 권력에 예속되어 있는 것이다.

위에서 간단히 언급한 푸코의 권력 담론의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의 일상의 삶에 나타나는 권력의 형태들을 TV드라마를 통하여 ‘감시’와 ‘규율’과 ‘몸(생체)’ 권력이라는 카테고리로 나누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1) ‘감시’를 통한 일상의 권력 작동

푸코가 주장하는 대로 현대사회는 감시와 처벌의 사회이다. 효율적인 경제성을 성취할 목적으로 유용한 힘을 얻기 위한 정밀하고 구체적인 규율과 훈육이 계속되고 정보소통의 경로는 지식을 축적하고 집중화하는 중심적 근거가 된다. 현대사회는 인간을 합리적으로 예측화하고 편입시키려하고 권력의 객체화시키려 한다. 이에 현대 대중들은 드라마에 나타나는 것처럼 권력에 항거하기 보다는 권력의 작용과 감시체계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들을 보인다. 자연스럽게 감시의 대상이 되며 규율에 얽매이며 처벌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다.

판옵티콘은 일방 감시 체계이다. 전통적인 감옥은 죄수들을 한데 모아 놓고 간수는 따로 떨어져 있는 형태이다. 그러나 판옵티콘은 한 명의 간수가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이다. 한 명의 간수가 가운데 탑에 있고 그 탑 주위로 여러 개의 방이 있고 죄수는 각 방에 따로 갇혀 있는 구조다. 이 구조는 간수들은 죄수들을 볼 수 있지만, 죄수들은 간수를 볼 수 없다. 판옵티콘은 ‘바라봄-보임’의 결합을 분리시키는 공간이다. 즉, 주위를 둘러싼 원형의 건물 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지 못한 채 완전히 보이기만 하고 중앙부의 탑 속에서는 모든 것을 볼 수 있지만 결코 보이지 않는다.³⁾ 이러한 일방 감시의 구조는 끊임없이 대상을 바라 볼 수 있고 즉각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적 단위이다. 이러한 감시체계는 권력의 자동적 기능을 보장해준다. 감시의 대상은 감시자가 보지 않더라도 자발적으로 감시의 대상체로 행동을 한다. 이는 가시성의 지속적이고 의식적 상태로 이끌려 가는 권력에 자연 순응하는 객체로 전락하는 것이다.

푸코는 감시의 권력을 일방 감시체제를 활용하여 설명하였다. 푸코는 보이지 않는 권력이 그 권력이 행해지는 대상을 교묘한 방식으로 객체화하는 권력을 말하였다. 이 권력이 제대로 행사되려면 지속적이고 철저하며 어디에나 있고 또한 모든 것을 가시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자신이 보이지 않으면서 사회 전체를 감시하는 권력을 설명하였다. 또한 권력의 합리성은 사슬 형태로 존재한다. 권력의 합리성은 서로 연관되어 서로를 끌어들이고 퍼뜨리며 다른 곳에서 버팀목과 조건을 찾아내면서 마침내 전반적 장치를 표출하는 여러 책략들이다. 거기에는 완전한 논리와 판독 가능한 목표가 존재하지만 그러한 책략들은 구상한 인물도 없고 그것들은 명확히 표명한 이도 거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난다.⁴⁾ 권력은 뚜렷한 주체가 없고 명확하게 표출되는 것이 아닌 기이한 현상으로 보는 것 역시 지금의 중국을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중국은 보이지 않는 감시의 기능이 매우 보편적으로 그리고 평범하게 그러나 명확성이 제시 되지 않게 작동하고 있다. 중국 전역에 얼굴인식 기능이 탑재된 CCTV 카메라를 1억7천만 대를 설치했고, 3년 이내에 4억 대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⁵⁾, 이러한 감시 기능을 보아도 중국의 감시의 작동은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다.

<마이 선샤인>은 전체적으로 애정 드라마로 볼 수 있다. 남주인공과 여주인공 간의 사랑이 큰 흐름이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우리는 감시의 작용을 발견 할 수 있다. 남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라는 직위로 여주인공을 위계적 권력을 보이는 장면이 있고 직장에서 보이는 여

3)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8, p.312.

4) 이남식, 『차이의 정치 — 이제 소수를 위하여』, 책세상, 2003, p.66.

5) <http://www.itnews.or.kr/?p=26341>. (검색일: 2018.04.28.)

팀장의 위계적 권력 행포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먼저 감시의 작동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드라마 속에 중국 공안의 존재감이 잠재의식에서 느끼게 하는 장면이 나온다. 여주인공이 대형 고급마트에서 남자주인공의 지갑을 훔치는 장면인데, 그녀는 마트 경비원에게 분실 신고를 한다. 그러나 드라마는 놀라운 장면을 제공한다. 그 경비원이 이 지갑을 다시 그녀에게 되돌려 주며 하는 말은 바로 자신이 그녀를 유심히 살펴보았기 때문에 이 남자 지갑은 당신이 늘 함께 왔던 남자 친구의 지갑이라는 것이다. 드라마 설정 상 매우 불편한 장면이지만, 감시의 작동에서 보자면 매우 특이할 만한 점이다. 즉, 중국에서 일반인들이 늘 일상에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드라마에서는 무심코 지나가는 장면이지만 이는 중국의 감시 권력이 항상 작동하고 있음을 매우 상징적으로 보여 주고 있다. 어찌 보면 최근 중국정부가 모든 중국인들의 안면 인식기능을 작동하여 범인 색출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는 것과 매우 일맥상통하는 모습이다. 평범한 경비원의 등장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는 감시자들이 언제나 주위에 널려 있음을 반증하나는 것이나 다름없다.

<베이징 러브 스토리>에서 주인공 샤오 명은 대학을 졸업하고 베이징에서 성공하려고 하지만 돈과 권력이 없는 자신으로서는 대도시 베이징에서 성공하기가 불가능함을 깨닫는다. 결국 그는 자신의 친구 핑즈의 아버지 회사로 취업하며 성공의 가도를 달린다. 그가 힘들 때마다 회사의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밤에 빛나는 베이징의 모습을 보며 성공을 다짐한다. 여기서 우리는 '건물 옥상'이라는 곳에서 감시 권력이 작동함을 보게 된다. 성공의 상징은 '높은 곳'이지만 통제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자신은 '높은 곳'에서 통제되는 것 같지 않지만 자신의 높은 곳 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권력의 감시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샤오 명은 결국 그 회사에서 쫓겨나고 여자 친구와 헤어지며 감옥으로 잡혀가는 모습이 결말에 나온다. 이러한 파국을 보면 결국 샤오 명이 위치한 높은 곳 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권력이 샤오 명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그가 그 감시의 시선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베이징의 야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준다.

또한 중국 드라마의 특이한 점은 드라마 속에 중국 공안이 자주 등장한다는 것이다. 특별히 공안이 나오지 않아도 되는 장면이지만 억지스럽게 그들을 등장시키는 것은 중국 정부의 의도성이 엿보이는 것이다. 중국인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등장을 보면서 감시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느끼게 되고 공안이 친절한 모습과 동시에 감시자의 모습으로 여기게 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사랑>에서 강패의 기물 파손 장면과 외할머니의 가출사건으로 공안이 등장한다. 그러나 여기서 보여 지는 공안의 모습은 중국인들의 친절한 동반자의 모습으로 비쳐지면서 동시에 그들의 감시 기능의 역할을 하는 존재로 부각된다. 기물 파손의 처리과정은 매우 순탄하게 처리되고 외할머니의 실종 역시 매우 쉽게 해결된다. 일반적인 한국 드라마에서 볼 수 있는 경찰의 사건 처리 과정은 생략된 것이다. 중국 드라마에서의 공안의 이미지는 매우 친근하고 중국인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그런 존재임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이 드라마에서 단지 몇 개의 컷으로 등장하고 있는 공안의 존재감은 드라마의 내러티브를 반감시킬 정도로 매우 불편한 등장인물로서 동시에 감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2) ‘규율’을 통한 일상의 권력 작동

푸코는 규율을 바탕으로 하는 권력은 사실상 사취나 강제 징수 대신 ‘훈육시키는 일’을 주 기능으로 삼는다. 어쩌면 좀 더 교묘히 징수하거나 보다 더 사취하기 위해서 훈육을 시킨다고 말하고 있다. ‘규율은 개인을 제조한다’. 즉 그것은 개인을 권력 행사의 객체와 도구로 간주하는 권력의 특정한 기술이다.⁶⁾ 푸코에 따르면 규율은 복종되고 훈련된 ‘순종하는 신체’를 만들어 낸다고 보았고, 규율은 통제와 처벌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규율에서의 처벌은 보상-제재라는 이중적 체계를 이루고 있다. 푸코는 이러한 규율의 법칙을 통하여 권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국가권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규율을 근간으로 하는 권력의 성공은 단순한 수단을 사용한 점에 기인한다. 그 수단이란 위계질서적인 감시의 눈빛, 규범화된 상벌제도, 그리고 이들을 이러한 권력에 특유한 방식인 시험, 서열화, 특권화 된 신분 등을 통하여 결합시키는 방식들이다. 규율 중심적 권력은 완전히 공개적인 것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은밀한 것일 수도 있다. 공개적인 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권력이 도처에서 항상 경계하면서 원칙적으로 어떠한 애매한 부분도 남겨 놓지 않으며 통제의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조차 끊임없이 통제하기 때문이다. 규율은 고유한 메커니즘에 의해 유지되는 여러 관계로 움직이는 권력을 작동시키고 갑작스럽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 형태보다는 계산된 시각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양상을 선호한다.⁷⁾

국가는 개인의 통제를 자유롭게 가능할 때에 체제 유지가 지속가능하며, 이와 역행되는 개인은 반드시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체제 유지는 엄격한 감시와 처벌의 수단이 동원되어야 권력을 유지 계승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이에 대한 강제적인 방법이 바로 규율을 강요하는 것이다. 푸코는 규율을 공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았다. 폐쇄되거나 세밀하게 재구성 된 공간 안에 개인의 자리가 지정되고 활동공간이 배당되면 세분된 공간에 의해서 개인들은 쉽게 통제할 수 있는 것이다. 학교의 교실에서나 공장의 작업장에서, 병원에서, 감옥에서처럼 재구성된 공간에서 규율은 늘 작동하고 이러한 규율의 통제 시스템에서 개인들은 자연스럽게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⁸⁾ 이러한 규율이라는 보이지 않는 통제와 감시개념은 일상 속에서 살아가는 중국인들을 통해 현재의 중국의 감시와 통제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달팽이 집>은 중국이 도시화하면서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부패한 모습, 도덕관의 붕괴, 성적 타락 등을 잘 드러내고 있다. 특히 등장인물 중에 시장 비서인 송쓰밍이 규율 권력으로 등장한다. 그는 시장의 비서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재건축의 비리, 성적 비리 등 현재 중국이 변해가는 모습 속에 나타나는 권력의 모습들을 잘 나타내어 주고 있다. 그는 그의 우월적 위계의 권력을 이용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이권에 개입되어 이득을 보며 자신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상사에게도 잘 보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의 이러한 모

6)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8, pp.267-268.

7)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8, p.280.

8) 이강인, 「푸코의 ‘권력’개념으로 바라본 <세계>에 대한 담론」, 『중국학』, 제33집, 대한중국학회, 2009, p.342.

습은 다시 자신 보다 낮은 대상들 특히 여성인 하이자오와의 만남을 통해 우월적 권력을 행사한다. 그의 권력 작동으로 인해 하이자오를 유린하게 되고 여성으로서 파괴되는 인생을 살게 된다. 또한 송쓰민 자신의 가정마저 파괴되는 결말을 겪게 된다. 자신이 권력의 행사 주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또 다른 보이지 않는 감시의 대상이 되어 그동안 저질러 온 비리들이 밝혀져 감옥으로 가는 모습이 나온다. 송쓰밍은 자신이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자신의 뒤에서 바라보고 있는 감시의 권력을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권력 행사에만 집중하게 된 것이다.

위계의 의한 규율은 매우 효과적인 권력의 작동으로 나타난다. <마이 선샤인>에서도 여자 주인공은 광고회사에 취업하여 열심히 광고 촬영을 한다. 그러나 자신의 상사인 여팀장은 그러한 여자 주인공을 인정하지 않고 매우 그녀를 힘들게 한다. 모든 직장 동료들은 그녀를 좋아하고 따르지만 유독 여팀장만 그녀를 못살게 하는 인물로 나온다. 여기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일상의 모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위계에 의한 권력의 작동이다. 푸코가 말한 것처럼 학교나 직장, 군대 등 위계의 질서가 있는 곳에서는 규율의 권력이 강하게 작동한다고 했다. 규율에 따르는 것에 따라 상벌이 존재하는 것이다.

여팀장은 직장이라는 공간 속에서 직위의 우월성을 앞세워 그녀의 잘못을 질책하고 그녀의 모든 성과나 호의를 무시해버린다. 이러한 모습은 비단 이 드라마에서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체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극히 평범한 모습들이다. 일상의 권력에서 규율의 권력은 거부할 수 없는 순응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권력의 하나이다.

이러한 드라마에서 보여 지는 일상의 모습들은 규율의 권력이 매우 자연스럽게 인간의 의식 속에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푸코는 일찍이 규율의 권력은 다양하고 자동적이며 익명인 권력으로서 조직된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감시가 개개인을 대상화한 것은 사실이지만, 감시의 운용은 상부에서 하부로, 또한 어느 정도까지는 하부에서 상부로 또한 측면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망으로 된 운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계망이 전체의 구석구석을 가로질러 간다⁹⁾라고 정의 하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장소,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규율의 권력의 모습들이 잘 드러나고 있다.

3) ‘생체(몸)’을 통한 일상의 권력 작동

일찍이 푸코는 생체(몸)-권력 담론으로 권력이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 가를 살펴보았다. 푸코는 권력이 사람의 내면에 침투하여 정신을 지배할 뿐만 아니라 외면인 몸에도 쏘여 지며 ‘권력의 의도가 몸에 각인’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을 다양한 연구사례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그는 특정한 권력이 인간의 신체에 개입하여 길들여서 인간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미시적 권력을 설명하였다.

‘생체 권력(bio-power)’은 인간의 몸에 각인된다. 부모, 학교, 직장, 국가라는 권력에 자연스럽게 길들여진다. 권력이 원하는 것이 몸이 원하는 것으로 믿어지게 된다. 생체 권력을 통해 정신을 통제하는 것이 육체를 처벌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 통제수단이 될 수 있는 것

9) 미셸 푸코, 오성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8, p279.

이다. 생체 권력의 작동방식은 감시와 통제, 길들임으로 언제나 자아를 지배하고 있다. 자발적 복종으로 되어 간다. 인간의 신체는 이러한 교묘한 생체 권력의 메커니즘에 지배당하고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것이다. 집, 학교, 직장, 더 나아가 전체 사회에 그러한 생체 권력이 작동하는 공간이다.

생체 권력은 감시와 훈육에 저항조차 할 수 없게 되어있다. 감시를 통해 서서히 길들여 저 생체 권력에 저항하기 어렵다. 훈육과 교정은 우리의 신체에 새겨져 알아서 작동하는 기능을 한다. 생체 권력은 몸에 직접 작용하고 잠재적으로 몸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여 권력에 지배당하여 저항하지 않는 복종적 자아를 만들어 낸다. 판옵티콘으로부터 시작된 감옥, 학교, 군대, 직장의 일상적 감시를 통한 길들임은 인간의 몸에 가해진다. 몸을 조련하고 몸의 힘을 착취하고 몸을 유용하게 만드는 과정을 통해 순응하게 만든다. 그렇게 인간은 감옥, 학교, 군대, 직장에 순응하는 몸으로 길들여지는 것이다. 신체규율을 통해 신체에 직접 작용하고 신체에 새겨지는 권력이 바로 생체 권력이다.

살아가는 행위는 더 이상 죽음의 우연과 숙명 속에서 때때로 떠오를 뿐인 접근 불가능한 기반이 아니라 지식의 통제와 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일정 부분 넘어가는 것이 된다.¹⁰⁾ 권력이 생명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은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교정하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한다. 이 권력은 인명을 빼앗음으로써 드러나는 것이 아닌 규정짓고 측정하고 평가하고 위계화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권력의 지배는 개체의 신체뿐만 아니라 내면에까지 집요하게 관철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푸코는 권력의 문제는 선명한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이 검열하는 자아와 검열당하는 자아 관계까지 확대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권력에 지배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지배당하고 있는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복종을 강요받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자발적이라고 잘못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인간은 의식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고 틀지어지는 피동적 존재라고 푸코는 보았다. 푸코는 감시와 규율의 작동으로 우리의 사물 인식을 틀지어주는 중요한 권력의 작동 구조로 보았다. 권력의 작동은 사물 인식의 틀지어짐에 의해 스스로 속박하고 길들여진다. 신체적 속박이 정신적 속박으로 형성되고, 외적 폭력이 내면적 폭행으로 대치되는 경향을 보인다. 자기 스스로 도덕적으로 죄의식을 느끼고 단죄하며 비난함으로써 스스로 속박되는 것이다.

<우리들의 사랑>은 중국에서 인기 있었던 가족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는 중국의 일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에피소드를 통해 가족 간의 사랑, 특히 아이에 대한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다. 중국에서 당연히 중요시 하는 것은 가족의 사랑이지만 드라마 내러티브에서 중요하게 잡은 것은 아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학교 주변으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는 것이다. 전체 드라마에서 아이 텅텅을 위해 온 가족이 새로운 집을 사서 아이를 교육하는 것이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부부는 아이를 위해 거저으로 협의 이혼을 하여 쉽게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선택

10) 미셸 푸코, 이해숙·이영목 옮김, 『성의 역사 1』, 나남출판사, 2004, p.160.

한다. 소위 중국의 명문 학군지역 아파트(學區房)¹¹⁾ 지역의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은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 집을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이며 아이를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해야 하는 모습들이 담겨져 있다. 자신의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아파트를 구입하고 학군이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는 그들의 의식이 자연스럽게 비쳐지고 있다.

<달팽이 집>과 <베이징 러브 스토리> 역시 집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인공만 다를 뿐 내러티브의 주 소재로 나오고 있다. 위에취팡(學區房)은 아니지만 집이 이들의 의식과 삶의 틀을 쥐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달팽이 집>의 여자 주인공인 하이핑과 남편 수춘이 자신의 집을 사기 위해 모든 경제적 절약을 다하는 장면과 집을 위해서도 딸을 친정집으로 보내어 돈을 절약하려는 모습과 <베이징 러브 스토리>의 주인공 샤오 명이 베이징에서 성공하기 위한 몸부림과 집을 장만하기 위해 친구들과 은행으로부터 무리하게 돈을 빌리는 모습들은 소위 말하는 팡누(房奴, 집의 노예)로 전락하는 중국인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중국인들에게 집의 의미는 하나의 삶 그 자체이며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현재의 중국인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는 길들여짐의 한 연속선상에 있는 것임을 발견하게 된다.

생체 권력이 생명체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지배력은 생명 자체의 차원에 집중하고 생명을 떠맡는 것이 임무인 권력은 지속적으로 조절하고 교정하는 메커니즘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있다. 권력과 지식은 여러 방식으로 이렇게 획득된 작용 공간을 조직, 확대하면서 생명의 과정을 고려하고 생명의 과정에 대한 통제와 변화를 시도했다. 살아가는 행위는 더 이상 죽음의 우연과 숙명 속에서 때때로 떠오를 뿐 접근 불가능한 기반이 아니라 지식의 통제와 권력의 개입이 이루어지는 영역으로 일정 부분 넘어가는 것이다.¹²⁾ 즉 일상에서 생명을 통제하는 생체 권력은 자연스럽게 인구조정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권력의 생명에 대한 조절과 교정은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인구조절이 필요한 시점에서 1자녀 정책과 최근의 2자녀 정책도¹³⁾ 인구조절 기능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권력의 지배와 작동은 생명의 통제와 위계화를 조장하여 사람들의 의식과 삶의 행태를 작동시킬 수 있다. 이 드라마에서도 어린 외손녀를 중심으로 부부의 위장 결혼과 그로 인한 아빠의 재혼, 그리고 외할머니의 어린 손녀에 대한 집착으로 본인의 신분으로 속이고 가정부로 취직하여 벌어지는 해프닝이 있다. <달팽이 집> 역시 집을 구입하는 큰 목적 중의 하나가 자신의 딸과 행복하게 살기 위한 것으로 나온다. 그리고 친정집으로 딸이 보내졌지만 잊을 수 없어 괴로워하는 모습들이 자주 등장한다. 이렇게 중국의 많은 가족 드라마에는 손자나 손녀의 등장이 하나의 내러티브를 형성하는 중요한 소재를 차지하고 있다. 여기서 보여 지는 노인들의 집착은 한국의 노인들보다 더 강하게 나타난다. 결국

11) 중국 베이징대, 칭화대, 런민대 등이 밀집한 명문학군(學區房) 소재의 중고등학교에서 명문대 진학률이 높으며, 해당 중고교에는 지역 거주민만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일대 입주를 위해 부동산을 구매하려는 수가 상당하며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있다.

<http://nownews.seoul.co.kr/news/>(검색일: 2018.04.25.)

12) 미셸 푸코, 이해숙, 이영목 옮김, 『성의 역사 1』, 나남출판사, 2004, p.162.

13) 중국 공산당은 제18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든 부부에게 2명의 자녀 출산을 허용하는 '2자녀 정책'을 전면 도입키로 결정하였다.

<http://insight.stockplus.com/articles/1399>(검색일: 2018.04.25.)

중국인들의 생명에 대한 집착은 그들의 일상생활 속에 생체 권력으로 작동하고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이다. 분명 그들은 생명에 대한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중국 정부의 권력 지배의 하나로 생체 권력이 작동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다.

4. 나가며

중국에서 방영되었던 TV드라마들 중에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진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여 드라마에서는 어떤 일상의 권력이 작품을 통하여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고 중국 사회문제를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보았다.

권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노출되어 작동할 수도 있지만 일망 감시체제처럼 감시의 대상이 감시를 받는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감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규율을 스스로 지킴으로서 처벌의 대상을 회피하려는 심리적 현상을 보인다. 그리고 자신을 윤리적인 사람으로 인식하고 규율을 잘 지킴으로서 생체 권력의 순응자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바로 보이지 않는 권력의 감시 기능이며 개인들을 강제적이지 않으면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국가 권력의 전략인 것이다.

중국은 경제적 발전을 이루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면서 많은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할 상황에 놓여져 있다. 시진핑 정부가 2018년 새롭게 조직되면서 장기집권의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러한 중국의 당면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은 장기적 집권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킬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니다. 따라서 중국의 향후 정치적 방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중국의 대중문화의 하나인 TV드라마를 통하여 중국의 근 10년간의 흐름을 볼 수 있었다. 이 기간은 중국의 경제발전이 본격적으로 제고되는 단계이며 중국인들의 삶의 수준이 많이 향상되어 의식의 방향도 많이 변화하는 시기이다.

본 논문에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이들 드라마를 통하여 보여진 권력의 작동은 분명 강제적이거나 공개적인 작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권력의 속성인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여 지지 않는 것이 이들 드라마를 통하여 잘 드러남을 알 수 있었다. 드라마에서 사용된 일상에서의 권력의 작동은 감시와 처벌, 규율과 순응, 생체의 무의식적 길들여짐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중국만의 문제만은 아니다. 다른 국가에서도 일어나는 현상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중국이라는 인접한 국가를 올바르게 바라봄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제들을 전망하고 대처해야 할 입장에 놓여 있는 것 역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는 중국의 대중문화, 특히 TV드라마나 영화를 통하여 중국의 정치와 경제, 그리고 중국인들의 의식과 삶을 이해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공봉진 외6명, 『시진핑 시대의 중국몽』, 한국학술정보, 2014.
- 김정옥·이승은, 「상하이 도시 문화 연구, TV드라마 <오막살이(蜗居)>의 서사 전략에 나타난 문화, 여성, 권력에 대한 변주」, 『중국인문과학』, 제46집, 2010.
- 譚皓月, 「중국 신세대소비자 라이프스타일의 연구 — 80후세대와 90후세대의 비교」,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 유진석, 「소비대국 중국, 그 중심에 있는 신세대」, 『SERI경제 포커스』, 2013.
- 조복수, 「중국 드라마 <달팽이 집(蜗居)>에 나타난 여성」, 『드라마연구』, 제38집, 2012.
- 김택모, 『프랑스의 이해』, PUF, 1998.
- 미셸 푸코, 오생근 옮김, 『감시와 처벌』, 나남출판사, 2008.
- 미셸 푸코, 이규현 옮김, 『광기의 역사』, 나남출판사, 2003.
- 미셸 푸코, 이혜숙·이영목 옮김, 『성의 역사 1』, 나남출판사, 2004.
- 박민미, 『푸코의 근대 권력 비판과 '성-주체'』, 시대와 철학, 2005.
- 박승규, 「푸코의 근대적 권력과 "주체"의 관계에 대한 "문제화"」, 『국민윤리연구』, 제49호, 2002.
- 사공일, 「핀터의 The Dumb Waiter: 푸코의 권력의 전략」, 한국현대영미드라마학회, 2009.
- 양혜림, 「푸코의 남성주체에 관한 몸과 성의 담론: 『성의 역사』를 중심으로」, 『범한철학』, 2003.
- 유세종, 「현 중국사회를 읽는 하나의 거울 — 지아장커(賈樟柯)의 <세계>, <스틸라이프>론」, 『중국연구』, 2008.
- 이강인, 「푸코의 '권력'개념으로 바라본 <세계>에 대한 담론」, 『중국학』, 제33집, 대한중국학회, 2009.
- 이남석, 「차이의 정치 — 이제 소수를 위하여」, 책세상, 2003.
- 이중희, 「중국 부호계층의 성장과 국가 권력에의 접근력」, 『아시아연구』, 2007.
- 이진경, 「근대적 생명정치의 계보학적 계기들 — 생명복제시대의 생명정치학을 위하여」, 『시대와 철학』, 2007.
- 조영현, 「장원 영화의 하위문화와 권력 탐색 — <北京雜種>, <東宮西宮>, <過年回家>를 중심으로」, 『중국문학연구』, 2006.
- 张权生, 「<蜗居>的女性主义批评」, 『贵州大学学报』, 第1期, 2011.
- 祝东力, 「笔谈: <蜗居>及其时代处境」, 『艺术评论』, 第3期, 2011.
- 彭 玲, 「<蜗居> 中的女性形象分析」, 『艺术空间』, 第2卷, 2011.
- 林 芳, 「浅谈<蜗居>中"海藻"的人物性格分析」, 『读与写杂志』, 第9卷3期, 2012.
- 王 平, 「无奈的奋斗」, 『科教文化』, 中旬刊, 2011.
- 张启平, 「谈<蜗居>中的女性形象塑造」, 『新闻世界』, 九月上月刊, 2010.
- 张权生, 「<蜗居>的女性主义批评」, 『贵州大学学报(艺术版)』, 第25卷1期, 2011.
- 张国良, 「20世纪90年代以来中国大众传媒状况的变化」, 『社会转型与媒介生态实证研究』, 上海交通大学出版社, 여름통권24호, 2007.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4/25/> (검색일: 2018.04.28.)
- <http://nownews.seoul.co.kr/news/> (검색일: 2018.04.25.)
- <http://insight.stockplus.com/articles/1399> (검색일: 2018.04.25.)
- <http://www.itnews.or.kr/?p=26341> (검색일: 2018.04.24.)

【논문초록】

키워드	국문	일상권력, 중국, TV드라마, 푸코, 담론		
Key Words	영문	Routine Power, China, TV dramas, Foucault, Discourse		
<div>Review on 'routine power' through China's TV dramas by Foucault's discourse</div> <div>Lee, Kang-In</div> <p>This paper looked at how the various powers that are revealed in everyday life are being exercised by the public, and how to rule daily lives. Through TV dramas that have become an issue or a hit with the Chinese public over the past decade, what are the problems and how do they look at China in their daily lives? This paper used Foucault's argument as a methodology to analyze the forms of power that is taking place in daily life, to especially try to understand how power dominates the lives of the masses.</p> <p>The daily operation of power used in the drama showed the monitoring and punishment, discipline and conformity, and the philosophic nature of living creatures. This trend is not just a problem in China. Things happen in other countries, too. But we are also in a position to look at China's neighboring country and deal with its future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problems. So we need to understand Chinese popular culture, especially through TV dramas and movies,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s and lives of the Chinese.</p>				
저 자 인적사항	성 명	이강인 / 李康仁 / Lee, Kang-In		
	소 속	부산외국어대학교 국제교류처		
	Em@il	whoru888@naver.com		
논 문 작성일시	투 고 일	2018년 04월 29일	심 사 일	2018년 05월 21일
	수 정 일	2018년 06월 17일	게재확정일	2018년 06월 22일